

Olanzapine의 체중증가 부작용 발생빈도 및 현황

이경희, 김정애¹, 용철순¹, 유봉규¹영남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¹영남대학교 약학대학

Olanzapine은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을 나타내는 정신정신분열증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서 종래의 정신분열증치료제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atypical antipsychotic drug으로 불리는 약물이다. 이 약은 종래의 정신분열증에 비하여 악성신경이완증후군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발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체중증가 부작용은 종래의 치료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2형 당뇨병이 합병되어 있는 환자나 당뇨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사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이 약의 제조회사인 미국 Lilly사는 olanzapine이 체중증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증가, 혈당상승의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미국내 제품라벨에 표기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여 의료진들도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 체중증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잘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 사이에 경북 경산시 소재 한 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 101명중 olanzapine을 최소 2주 이상 복용하고 입원기간도 2주 이상인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체중변화를 조사하였으며 주 1회 측정된 체중의 증가량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체 입원환자의 65%가 체중이 증가하였고 증가량은 1개월 평균 3.69kg이었다. 체중증가 부작용의 발생율은 여성(56%)보다 남성(70%)의 경우에 더 흔히 나타났지만, 체중증가량은 여성(4.3kg 증가)이 남성(3.4kg 증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증가 부작용 발현율을 환자의 연령별로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및 60대 이상의 경우 각각 78%, 92%, 60%, 33% 및 50%로서 비교적 젊은 환자일수록 높았으며 특히 30대 환자에서 가장 높았다. 본 연구결과, olanzapine의 체중증가 부작용은 미국 환자들에 있어서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환자들에게도 발생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olanzapine의 사용설명서에 체중증가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보완하여 제2형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